

오피니언

월/요/광/장

서선희



7080 세대인 나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랐다. 그런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인은 무례하다는 말이다. 당시의 국제선 스태어디스들은 한국인들은 기내에서 양말을 벗어 밥 냄새를 진동케 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술을 거꾸로 청해 마시다가 비행기 안에 술 냄새를 풍기는 것도 모자라 고성방가까지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전했다.

해외여행 가이드들도 한국인들은 어릴거나 고추장을 쌈다니며 호텔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냄새를 한가득 호텔방에 남겨놓고 떠나기가 일쑤어서 남부끄럽다고 가세했다. 보지 않았어도 선명한 영상을 그려내기에 충분한 그들의 진언을 듣고 우리 스스로도 한국인은 참 무례하구나 생각했고, 그런 우리를 창피해 했다.

한국인을 비방하기는 국내에서도 마찬 가지였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입술을 댄 솔잔을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마구 들이대며 솔을 권하는, 도무지 조용히 솔 마실 줄을 모르는 무례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들 했다. ‘빨리빨리’, 냄비근성’의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손대는 공사나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부실하거나 허술하기 심상이라고도 했다. 그런 맡이 대중매체에 회자되면 우리들도 당돌아

히트한 것이 아니나마 반신반의를 내려놓지 못했던 ‘한류’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많은 나라에서 한국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거나 가지고 싶어한다는 뉴스가 전해오고 있다.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은 많이 높아졌고, 한국의 문화는 “세계에 어디를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문화”라는 자부심까지도 형성되고 있어,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문화적 잠재성을 발굴하고 재현하는 시도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열혈 한국인

“맞아”, “우리는 참 부끄러운 족속들이지” 하며 동의했었다. 그러나 보니 우리는 서구 사회나 문화 앞에서 주눅이 들고, 문화적 자존감은 애써 민족주의적 관점에 기대어야 겨우 존재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 월드컵 축구에 나선 우리 젊은 선수들은 “과거에는 남미나 유럽 선수들과 겨루라면 주눅부터 들었고 수비만 하다가 게임이 끝났는데, 지금은 전혀 주눅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눅 들지 않는’ 것은 그들만이 아니다. 어쩌다 타이밍이 좋아

이러한 반전은 과거 그렇게 험호했던 한국인의 조아함, 무대포, 무례함에 숨어져 있던 악성의 또 다른 측면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례하다고 비판했던 한국인의 조아한 열혈성이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오늘을 있게 한 역동적 에너지로 작용한 것이다. 그 열혈성은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도록 도왔고, 그러므로 인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우리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을 내보이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하거나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기분 좋은 일이다.

〈광주대 사회복지학부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심재훈



담당 형사사건 중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사건이 많지만, 못내 아쉬움이 있었던 것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부가적으로 내리는 장기간의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이다. 위 제도들은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자유형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범죄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를 일정한 기간 내에 지정된 시간 동안 무보수로 근로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수강명령은 일정한 시간 동

부과되었다. 갑남은 강제추행과 사회봉사명령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항소하였지만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에서 과연 되었다.

위 두 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갑남은 부과된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다 직장을 끊고 말았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다니던 직장에도 알리지 않고 휴가를 받아 공관기일에 참석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장기간의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는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고려해야

안 지정된 장소에서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음의 각 사례는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된 경우이다. 첫 번째 사례는, 재혼을 한 갑녀가 재혼남으로부터 이혼소송의 피고가 될 때 동시에 재혼남의 자녀들에게 대한 수의 폭행 등으로 피고인이 된 사건이다.

위 폭행의 문제는 재혼남과 사이의 불화에 기인한 것이었다. 그 당시 갑녀는 중소기업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회계와 기장일을 처리한 비교적 성실한 여성임으로서 범죄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으면서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었다. 결국, 위 여성은 이혼을 당하면서 상대 남성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한 것은 물론,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인하여 직장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

두 번째 사례는, 광주에서 이를 있는 대기업의 협력사에 다니던 갑남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후 강간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 유죄의 취지로 집행유예처분을 받으면서 3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장기간의 휴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과 같은 경제상황에서는 장기간의 휴가를 받아 줄 회사도 없거나 직장을 그만둔다면 재취업의 어려움도 크다.

무릇 직장생활과 가정을 제대로 영위하기 위하여는 경제적 균형이 있어야 하는데 직장에서 해임 및 파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의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라는 애초의 그 제도적 취지가 무색해진다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위 각 제도를 전면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부과할 때에는 피고인들의 재사회화나 재범방지의 기능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경제적 균형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면 어떨까?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범죄의 유형별(특히 경제범죄의 경우)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면서 입법화하는 것이겠지만 변화나 피고인들이 일치하여 꾸준히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거하는 요

기고

양희문



전복은 패류 중 단백질 함량이 가장 많은 영양식품으로 ‘패류의 황제’라고 알려져 있다.

또 혈액 내 콜레스테롤을 낮춰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콜라겐 함량이 높아 피부미용에 탁월하며 미네랄도 많아 임산부에도 좋은 건강식품이다.

본격적인 전복 양식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80년 초, 현재 완도군은 전국에서 전복의 80% 이상을 생산하는 전복의 산지로 자리 잡았으며 2009년 지역 특화발전특구지역으로 선정됐다. 최근 완도전복은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인이기도 하다.

다행스럽게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돈 버는 농어업’, ‘살맛나는 농어촌’ 달성을 목표 달성을 위해 생산자 중심의 ‘공급 PUSH 방식’에서 농수산식품 유통법인이 생산자를 이끌어 가는 ‘수요 PULL 방식’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전복산업 대표기관인 한국전복산업연합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전복산업 발전과 1조원 산업으로 육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산하 전복연구회에서는 전복산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

‘2010년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RIS) 신규사업’에 선정돼 세계일류화 브랜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전복의 고장으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복산업은 연간 4000억원을 초과하는 산업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전국 최고의 전복 산지에서도 전복산업의 유통구조는 현장수매라는 원시적인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의 전복산업 유통구조는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물량공급이 아닌 생산자 편의 또는 필요 위주의 출하에 의한 현장수매로 인해 전복가격의 변동이 심하고, 불필요한 상품까지 일시적으로 수매하게 돼 유통비용 및 물류비용의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복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

업의 발전을 위해 수급조절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전복산업연합회 소속 전복 산업 중 유통분야의 주축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전복유통협회에서는 전복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산지 위판장 및 완도 전복 종합물류센터(전복유통 센터 포함)를 건립하고, 전복유통 중매인 제도를 추진하는 등 선진화된 유통구조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복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임은 자명한 사실이고 또한 향후에도 발전 가능한 잠재력이 대단한 산업이라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데 기틀이 되는 유통구조 개선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사항일 것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끼어야 보배’이기 때문이다.

〈한국전복유통협회장〉

외곽도로 찾은 신호위반, 조급한 운전습관 고쳐야

해남읍 성동리에 사는 75세 노인이다. 지난달 29일 자식들을 만나러 광주에 갔다가 무례한 짚은이와의 다툼 때문에 경찰서 행을 할 뻔 하였다.

이유인즉, 내 차를 골목에 세워두었는데 다른 차가 앞을 막아 끔찍하게 짚을 수 있게 되어버렸다. 좀 비켜 달라고 전화를 해보려 온 차를 살펴보았으나 전화번호도 없고 하여 30분간이나 밤을 구르다가 하는 수 없이 불구청에 연락하였다.

구청 교통지도반에 현장에 도착해 백방으로 연락해도 차주를 찾을 수 없어 견인차를 출동시켜 막 견인을 하려는 순간 웬 짚은이가 나타나 차기 차라고 하는 것이다. 시간은 이미 한 시간 반이나 지나버린 뒤였다. 그 짚은이에게 불평을 토로하니 되레 불쾌한

는 생각을 해봤다.

만약 내 앞에 차가 있는 상태에서 주들이라도 당한다면 나는 추돌당한 탄력에 의해 내 차로 앞의 차량도 박을 것이다. 나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그 차의 부서진 부분까지 수리해야 한다. 그래봤자 3분이다. 그 3분에 운전자 자신, 보행자, 다른 차량 운전자 모두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최인준·광주 북구 운동동

시설

영산강 준설토, 장마철 유출 피해 없어야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영산강 준설토 처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영산강 주변 적치장에 쓰러둔 준설토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등 홍수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준설토가 집중 호우에 털어 강으로 다시 흘러들어가거나 유실된다면 그동안의 준설토 작업은 허사가 된다. 예산과 인력의 엄청난 낭비는 물물로 고생해온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장마철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있다. 영산강 주변의 퇴적 오니가 준설토가 집중 호우로 흘러내릴 경우 환경오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이 오염되면 농경지 피해로 이어져 농민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장마철 홍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은 영산강뿐만 아니라 전국 4

대강이 비슷한 실정이다. 정부가 치밀한 사전 준비 없이 사업을 서둘러 추진한 탓이다. 6월 말까지 4대강 준설토를 하천 밖으로 치우겠다는 국토해양부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준설토가 집중 호우에 털어 강으로

광공요금 인상이 불을 이루고 있다. 지자체들이 최근 앞다퉈 상수도, 시내버스, 택시 요금 등을 올리고 나섰으며, 정부도 열차요금, 도로통행료, 전기료, 우편료 등의 인상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마치 지방선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공공요금을 올리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전남도는 지난 1일부터 전남지역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을 8.6~12.7% 인상했다. 또 여수해양과학관의 관람료를 무려 50~100% 올렸다. 광주시도 시내버스와 상수도, 지하철 요금 인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7월부터 전기, 열차, 도시가스, 상수도, 도로통행, 우편료 등 6개 주요 공공요금의 판매수입(가격)을 공개했다. 이들 공공요금의 수입가격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공요금 인상의 필수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원가정보를 공개한 이유가 하반기에 공개할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이 봄을 이루고 있다.

지자체와 공기업은 공공요금의 적자로 커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서민생활을 들여다보면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 상조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꽉막하기만 하다. 사상 최악의 실업대란이 계속되고, 금리와 물가인상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특히 금리인상은 가계의 이자 부담을 크게 늘려 서민생활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

無等鼓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이라는 한 가지의 무뿐” 헤르만 헤세는 그의 시 ‘행복해진다는 것’에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다”고 단언한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행복이란 무엇이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국내 조사결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성인 969명을 대상으로 ‘경제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1위는 49.1점을 얻은 강원이었다.

전남(45.5)은 5위, 서울(43.4)은 8위, 광주는 40.1점을으로 12위였다.

우려스러운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지난 5월 초중고생 5000여명을 대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OECD

국가와 비교해보니 26개국 중 최하위였다.

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년만에 2만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날로 심화하는 소득양극화와 경쟁교육 속에서 마냥 반기워할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영국 신경제재단(NEF)은 기대 수명과 삶의 만족도, 환경오염도 등을 평가해 ‘국가별 행복지수(HPI)’를 발표한다. 지난해에는 코스타리카·도미니카 공화국·자메이카·파라과이 등 남미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국가와 비교해보니 26개국 중 최하위였다.

입시 스트레스가 주범이다.

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년만에 2만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날로 심화하는 소득양극화와 경쟁교육 속에서 마냥 반기워할 소식은 아닌 것 같다.

/정후식 정경부장 who@kwangju.co.kr

국가와 비교해보니 26개국 중 최하위였다.

입시 스트레스가 주범이다.

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년만에 2만달러를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날로 심화하는 소득양극화와 경쟁교육 속에서 마냥 반기워할 소식은 아닌 것 같다.

/